

행복한 금요 편지

사랑과 정의의 지도자를 허락하소서

장창원

한반도선진화재단 정책위원¹⁾

안녕하세요. 저는 말과 생각으로 소통을 한답시고 매일 문안드리고 불러보았지만 이렇게 편지를 쓰기는 처음이네요.

현재 우리나라의 어렵고 심각한 문제를 지금까지는 그래도 우리 힘으로 풀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줄 알았지요! 미련한 저는 이제서야 절대 불가능함을 절실히 깨닫고 있습니다. 지금 생각하니 겸손하지 못한 우리들의 교만이었고 자만이었던 말씀은 먼저 드립니다. 모든 것을 당신께 맡기는걸 겸손으로 배웠지만 잊고 있었습니다. 잊은걸 아시고 우리에게 다시 가르쳐 주셨습니다.

중세 철학자 **아우구스티누스**를 통해 겸손이 뭐냐고 묻는 제자에게 “교만의 반대”라고 대답했습니다. 제자는 다시 그러면 교만이 무엇이냐고 물었을 때 “나는 겸손하다”고 말하는게 교만이라고 말했습니다.

당신이 사랑하신 이 세상 이 나라가 지금은 풀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문제들을 안고 전쟁보다 참혹한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북한 김씨 세습왕조인 독재수령국가지도자의 탐욕으로 개발된 핵과 미사일 때문에 ‘안보/외교 문제로’ 나라와 세계가 일촉즉발 전쟁 수준의 위협을 받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한 심각한 일자리 부족과 대기업과 초고소득층의 정의롭지 못한 욕심과 의도적인 정책부재로 촉발된 양극화 등의 경제문제로 우리의 젊은이들과 저소득층은 이 상태를 벗어나려고 어려운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처절함은 너무 비통해 때로는 제 눈물도 펄펄 쏟아지고 있습니다.

1) 행복편지를 기고해 주신 장창원 한반도선진화재단 정책위원은 성균관대학교 교수와 한국플랜트협회 플랜트인재교육 인력양성운영위원장 등을 역임하고 계십니다.

일자리 창출과 경제재도약을 위해 구조조정과 낡은 제도의 개혁과 혁신으로 당사자들의 갈등과 싸움은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또 기후변화 지진 등 다른 문제는 얼마나 많은지요! 이러한 풀리지 않는 문제들을 언제까지 두고 보시렵니까? 저는 세상을 사랑과 정의로 창조하신 당신께서는 그 해결책도 주셨다고 믿고 있습니다. 우리가 게을러서 몰랐고 찾지 않았을 뿐이라고 말이죠! "너희는 전략으로 싸워라 지략이 많음에 있느니라"고 말씀하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여기서 지략이란 각 부문의 뛰어난 전문가의 총정 어린 정책을 모으고 이를 기초로 대응하여 난국을 극복하라는 전략과 계획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예로 안보문제를 전략적으로 해결했고, 당시 지금보다 어려웠던 고난의 경제문제를 해결하려했으며, 황폐한 상황에서도 개혁을 깔끔하게 행했던 **노헤미아** 같이 국가전략을 세우고 널리 인재를 등용할 줄 알고 충실히 소통하고 겸손히 시행했던 사실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한테 전략부족의 지도자, 주변의 좁은 시야에서 더 유능하지 못한 인사기용의 지도자, 국민공감이 없는 지도자가 있을 뿐입니다.

6.25 한국전쟁 후 1962년 일인당 소득이 80불정도 수준에서 2016년 2만8천불 수준으로 세계에 유례가 없는 산업화 성공을 이루었습니다. 1987년에는 군사독재정권으로부터 우리가 지도자를 뽑을 수 있는 민주화를 이룩하게 하셨습니다. 벌써 우리 손으로 5번이나 국가지도자를 뽑았습니다. 이제는 선진화를 이룩해야하고 이 선진화를 확실히 담보하기 위해서는 민족의 아픔인 한반도 통일까지 이루어야 합니다. 2008년 시작된 세계경제 금융위기의 여파도 있었지만 몇 년째 저성장 국면에서 못 벗어나 10년 전부터 외쳤던 일인당소득 4만불은 턱없이 모자란 채 거의 제자리를 걷고 있으며 이에 따른 일자리부족 문제와 그 현상으로 소득격차문제는 더욱 악화되어 계층간 양극화가 더욱 심화되는 상황입니다. 남북통일의 염원은 강하지만 현실적으로는 국방 안보에서 상당한 위축과 지속적인 심각한 위협을 지난세월보다 더 크게 느끼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하여 지구 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는 물론 최근에는 안전지대로 여겨졌던 국토에 강한 지진까지 발생해 그 불안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하겠습니까?

당신께서 직접 우리나라에 오셔서 문제를 해결하시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당신의 지혜를 차용해 이 문제를 풀 국가지도자 민족지도자를 세워 주셔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겸손한 마음으로 요청 드리는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겸손하고 국민의 고통에 슬픔을 같이하는 참을 줄 아는 따뜻한 마음의 지도자!
자기 주변만이 아니고 유능한 인재를 널리 구하고 그 지략을 모아 논쟁하고 전략을 세
울 줄 아는 냉철한 머리를 갖고 있는 소통의 지도자!
듣고 참고 포용하되 국민을 외면하고 무시하지 않는 국민공감의 지도자!

이러한 지도자를 우리도 갖게 해 주십시오. 너무 요구사항이 많다고요? 알았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당신의 세상창조 원리인 사랑과 정의를 이해하는 지도자를 말입니다.

또 편지 쓰겠습니다. 그 때까지 안녕히 계세요.

대한민국에서 장창원

한선행복포럼에서는 '행복한 금요편지'이란 에세이를 통해 행복의 가치를 나누고 있습니다.
이 글을 읽고 계시는 당신의 소중한 편지를 기다리겠습니다. 행복을 함께 나누어 주세요!